

5-8 개월아의 기질 조사 연구

Research on the Temperament of 5 - to 8 - Month - Old Infants

최 영 희*

Choi, Young Hee

ABSTRACT

Prior studies on child development have focused mainly on 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ing mother variations. However, several studies proved that child variables, especially inherited temperament, influence or change the environmen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temperament of 5 - to 8 - month - old infants. One hundred and forty-three mothers of the infants responded to the RITQ that was devised by Carey and McDevitt (1978). The RITQ examined 9 temperamental categories. Based on the scor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five subgroups-Difficult, Slow-to-Warm-Up, Intermediate-High, Intermediate-Low, and Easy.

The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ing :

- (1) There were significant sex differences. Females appeared to have significantly more representation in the slow-to-warm-up, intermediate-high, and intermediate-low groups. There were more males in the easy group. In the comparison of the two sexes as to the mean score in the nine categories males were found to be more approaching, less intensive, positive mood, and highly distractible.
- (2) Infants' temperament was not related to the mothers' education level and their work status.
- (3) The mothers' global ratings were consistent with subgroup temperament characteristics.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6 학기)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의 성격이나 특성이 어떠한가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아기의 타고난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특성을 근거로 어린이의 성격과 행동발달을 예견하려고 한다. 어린이의 타고난 특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동심리학자나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심리학자인 Buss와 Plomin (1975)에 의하면 어린이는 개인 특유의 기질을 타고나며 그에따라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 성격과 행동에 개인차가 생긴다고 한다. 선천적인 특성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이나 행동의 범위가 정해지며, 그 범위내의 어느것이 표현되는가는 부모를 비롯한 외부의 환경에 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연구는 어린이 자신의 특성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아동발달에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며 어린이의 특성은 경시되어왔다.

어린이의 발달에 부모를 비롯한 환경은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그환경은 어린이의 특성—특히 선천적 특성인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 (Belsky, 1984). 13개월에 어머니가 돌보기 어려운 기질을 보인 어린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학습시키려는 노력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부정적 훈육행동을 보였다 (Maccoby, Snow & Jacklin, 1984). 이와같이 어린이의 기질이 어머니의 훈육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어린이의 발달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어린이의 기질을 조사하고자 한다. 영아기의 기질을 조사하여 성별과 어머니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질의 정의

기질은 뚜렷이 정의되지 않은 채로 오래전부터 사용되다가 약 20년 전부터 기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질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기질은 간단히 “행동 방식 (behavioral style)”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행동의 내용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how)” 행동하는가를 말한다 (Thomas, Chess, & Birch, 1968).

Thomas와 동료들은 어린이의 행동방식을 9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활동수준 (Activity Level) : 목욕, 식사, 놀이, 옷입기등을 하는 동안의 근육의 움직임 정도
2. 규칙성 (Rhythmicity) : 잠자기, 먹기, 배설등의 생리적 주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
3. 접근—배척 (Approach-Withdrawal) : 낯선 음식이나 사람과 같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처음의 반응
4. 적응성 (Adaptability) : 새로운 자극에 대한 처음의 반응 이후의 적응 정도
5. 반응강도 (Intensity) :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간에 그반응이 격렬한 정도

6. 정서성 (Mood) : 즐거운 행동이나 불쾌한 행동의 양

7. 지구성 (Persistence) :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정도

8. 주의분산도 (Distractibility) :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외부자극의 크기 정도

9. 반응역 (Threshold) :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극의 크기 정도

이러한 행동방식은 “생의 초기에 발달되는 타고난 성격적 특성” (Buss & Plomin, 1975)에 의하는 선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기질이 선천적이라는 점은,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를 비교 연구한 Torgersen 과 Kringien (1978)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 Thomas 와 동료들(1968)이 분류한 9개 기질영역 모두에서 이란성 쌍생아들 간의 차이가 일란성 쌍생아들 간의 차이보다 컸으며, 그차이폭은 생후 2개월 때보다 9개월에 더욱 증가하였다. 생후 초기에는 비슷한 태내·외의 환경으로 쌍생아들 간의 차이가 적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적 성향의 발현으로, 일란성 쌍생아 간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 반면에 일란성 쌍생아 간의 차이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이는 유전적 성향이 출생 직후보다 후에 나타난다는 Carey (1983)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기질이 선천적인 것이긴 하나 고정적이고 불변의 것은 아니다. 기질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주어 환경을 변화시킨다.

Carey (1986)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

로 기질이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환경이 제공하는 것 중에서 어린이가 받아들이고 무시하는것의 선택을 통해서, 받아들인 환경자극에 대한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양육자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을 바꾸어간다는 것이다. Buss 와 Plomin (1975)도 어린이의 기질이,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다른사람의 반응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질이란 어린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행동방식이며, 선천적인 것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질 측정과 기질집단 분류

어린이의 기질에 관심은 있었으나 측정할 도구가 발달되지 못한 이유로 기질연구를 체계적으로 못했던 심리학자들은 Thomas 와 동료들(1968)의 연구를 기초로 기질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Thomas의 연구 이래로 20여가지의 도구가 제작되었으며, 그중 7가지는 Thomas의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

(Hubert, Wachs, Martin & Gandour, 1982).

Thomas 와 동료들은 어머니와의 면접으로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질문하고 어머니의 응답을 평정자가 평정하였다. Carey (1973)는 이러한 방법이 자료 수집시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잘 훈련된 면접자가 필요하고, 얻은 자료를 평정하는데 여러가지 해석을 할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여 개방식 질문을 구조적

질문으로 바꾸었다. 70 문항의 3점 척도로 된 영아기질질문지(ITQ ;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한 결과와 Thomas 와 동료들(1968)의 결과와 일치함을 들어 ITQ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그후 Carey 와 McDevitt (1978)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수를 95개로 늘리고, 어머니의 반응에 더 많은 유동성을 주기 위해 6점 척도의 개정된 영아기질 질문지(RITQ ;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제작하였다.

그들은 개정된 질문지가 원래의 것보다 신뢰도와 내적합치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RITQ는 어린이의 객관적 행동을 어머니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 행동을 묻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반응에 어머니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어머니는 아기가 어려운 기질을 보이더라도 너그럽이 보아 줄 것이며, 반대로 직장을 가진 젊은 어머니는 아기의 쉬운 기질까지도 과장하여 어렵게 보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Bates, Freeland, 와 Lounsbury (1979)는 부모의 측정과 가정내 관찰을 통한 제삼자의 객관적 측정과의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그결과 상관성이 낮긴하나(.30 정도) 매우 일관성 있었다.

Bates 와 동료들의 조사와는 달리, Dunn 과 Kendrick (198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면접과 제삼자의 관찰 간에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Thomas 와 동료들(1968)의 9개 기질영역 중, 활동수준(57%)을 제외한 8개 영역에서 81~90%가 일치하였다.

제삼자의 관찰과의 비교가 아니라, 부모가 아닌 제이의 양육자의 측정과 어머니의 측정을 비교한 Rothbart(1981)는 서로 다른 두 명이 서로 다른 시간에 아기를 돌봄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기질을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어머니에 의한 조사로 객관적인 어린이의 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Thomas 와 동료들(1968)은 유아기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는 영아기부터 정상적 어린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아기가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5년동안 종단적연구(NYLS: 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하였다.

그들은 이연구에서 영아기에 적응성이 낮고,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며, 낮은 사람이나 장소와 접하면 위축되고, 정서 표현이 격렬하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는 어린이를 돌보기 “어려운” 기질(Difficult)의 어린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반대되는 특성의 어린이를 돌보기 “쉬운” 기질(Easy)이라고 하였다.

어려운 기질과 쉬운기질 이외에 “더딘” 기질(Slow-to-Warm Up)이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자극에 부정적 반응에 보이나 그 표현 정도는 격렬하지 않고 적응성도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영아기에 어려운 기질을 보인 어린이의 70%가 유아기에 문제행동을 나타내는데 비해 나머지 어린이들 중에는 25%만이 문제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Carey(1973)는 어려운기질, 쉬운기질, 더딘기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다고 하여 “중간고” 기질(Intermediate-High)과 “중간저” 기질(Inter-

mediate - Low)의 두집단을 첨가하여 어린이의 기질을 5집단으로 나누었다.

Carey(1973)는 어린이들을 5집단으로 분류하는 데에 NYLS의 9개 기질영역 중,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그리고 정서성의 5개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4개 영역도 어려운기질에 관련되긴 하나 영아기보다는 후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Hubert와 Wachs(1985)는 실제로 어머니들이 느끼는 돌보기 어려운 영아의 기질이 존재하는가에 의문을 갖고 어머니들에게 자유반응을 하게 하였다. 그결과 어머니들이 감지하는 어린이의 어려운기질이 실제로 있으며, 그것은 Thomas와 동료들(1968)이 지적하는 어려운기질의 특성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배타적 접근을 포함한 낮은 적응성을 어려운기질의 특성으로 지적한 어머니가 42.7%였으며, 부정적 정서성은 36.7%의 어머니가 지적하였다.

어머니에 의해 측정되는 기질이 시간이 지남에도 일관성있게 나타나는지를 살피기 위해 Rothbart(1981)는 영아가 3개월 때부터 6, 9, 12개월에 각각 기질을 측정하였다. 활동성과 미소짓기는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매우 일관성이 있었으며, 돌보기 어려운 기질은 6개월 이후부터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Bates와 Pettit(1984)가 6개월과 13개월에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아의 기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월의 어려운기질은 13개월에 더욱 어렵게 평가되고 있었다. Blennow와 McNeil(1979; 1980)은 6개월, 1년, 2년에 걸쳐 기질을 측정하였으며 6개월아의 어려운기질이 1세, 2세까지 일관성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Maccoby와 동료들(1984)은 12개월아의 어려운 기질로 18개월의 어려운기질을 강력히 예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들에 의해서, 3개월 이전의 기질로 그 이후의 기질을 예언하기는 어려우나 6개월경의 어려운기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기질은 대체로 6개월경부터 측정되고 있다.

3. 선행 연구

어린이의 기질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다른가가 심리학자들의 관심이었으며, 주요 관심은 어린이의 성별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비교였다.

Carey와 McDevitt(1978)는 4~8개월 남아와 여아의 기질 차이를 살핀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려운 기질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새로운 것에 더 잘 접근하였다. 다만에서 조사된 Hus, Soon과 Strigler(1981)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경향이 높았다. Blennow와 McNeil(1979)의 연구에서는 6개월아의 어렵고 쉬운기질에는 뚜렷한 성차가 없었으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적응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Bates와 동료들(1979)의 연구에서도 6개월아의 어려운 기질과 쉬운기질 사이에 성차가 보이지 않았으나, 24개월에는 그차이가 뚜렷하여 어려운 기질의 어린이는 거의 모두가 남아였다.

이와같이 대체로 6개월경까지는 어린이의

기질에 뚜렷한 성차가 보이지 않으나, 여아의 기질이 좀 더 돌보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 남아가 새로운 것에 접근을 잘하고 적응성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어린이의 기질이 유전적인 것이긴 하나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관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질 사이를 살핀 연구들 (Bates, Olson, Pettit & Bayles, 1982; Blennow & McNeil, 1981; Hus와 동료들, 1981)은 하류계층의 어머니가 중류계층의 어머니보다 영아의 기질을 좀 더 돌보기 어렵게 인식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검증하긴 하였으나 그관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어린이의 기질과 관계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Vaughn, Deinard와 Egeland(1980)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하류계층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류계층을 연구대상으로한 Carey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그결과 하류계층 영아들의 어려운기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Carey의 대상보다 교육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한 Vaughn과 동료들(1980)의 연구대상들에게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의 기질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영아의 기질이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따라 다르리라는 가정하에 Thomas와 Chess(1977)는 자신들의 연구를 푸에르토리코에서 실시한 결과,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인종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ameroff와 Kelly(1977)는 미국내의 백인과 흑인을 비교하여, 흑인 영아가 덜 규칙적이고 적응성이 낮으며, 접근을 덜하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대만의 Hsu와 동료들(1981)은 Carey의 연구대상과 비교하여 지구성을 제외한 8개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대만의 영아가 Carey의 연구대상보다 좀 더 쉬운기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연구 문제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 1) 영아의 기질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영아의 객관적 행동방식에 의해 분류한 기질이 어머니의 자녀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생후 5~8개월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아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우송하였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학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의 산부인과에 수록된 출생일지에서, 질문지

우송일자보다 5~8개월 전에 출생한 아기의 명단 중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반송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내고 응답지를 우송받았다. 300통을 우송하여 39통이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고 143통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55%였다.

남아가 67명으로 46.9%, 여아가 76명으로 53.1%였다.

2. 연구 절차

Carey와 McDevitt(1978)가 제작한 R-ITQ를 연구자가 번역하고 아동연구 전문가 2명과 비전문가 1명에게 번역 내용을 검사받아 약간의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RITQ의 번역 내용이 어머니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기 위해, 서울 근교의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5~8개월 된 영아의 명단 중 20명을 추출하여 질문지를 우송하였다. 7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결과, 2명의 응답자가 각각 한 문항씩에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그 문항이 같은 것이 아니었고 어느 한편으로만 치우친 반응을 얻은 문항이 없었으므로 질문지를 수정하지 않고 본연구에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

RITQ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부분은 NYLS의 9개 기질영역을 조사하는 95개 문항으로써 6점 척도이며, 각 영역별 문항수와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활동수준 : 13 문항. 높은 점수는 활동량

이 많은 것을 뜻한다.

2) 규칙성 : 12 문항. 높은 점수는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한 것을 뜻한다.

3) 접근-배척 : 11 문항. 높은 점수는 새로운 자극을 배척함을 뜻한다.

4) 적응성 : 11 문항. 높은 점수는 적응성이 낮음을 뜻한다.

5) 반응강도 : 10 문항. 높은 점수는 반응이 격렬함을 뜻한다.

6) 정서성 : 10 문항. 높은 점수는 부정적 정서를 뜻한다.

7) 지구성 : 8 문항. 높은 점수는 한가지 일을 계속하는 시간이 짧음을 뜻한다.

8) 주의분산도 : 10 문항. 높은 점수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쉽게 바꾸지 않음을 뜻한다.

9) 반응역 : 10 문항. 높은 점수는 약한 자극에도 반응함을 뜻한다.

이상의 95개 문항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α 값은 .83이었다.

두번째 부분은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일반적 평가”로써, 각 영역별로 한 문항씩을 질문한 9개 문항과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돌보기를 질문한 1개 문항으로, 모두 10개 문항이다. 두번째 부분은 3점 척도로 되어있다.

4. 자료 처리

영아의 기질을 Carey (profile sheet, unpublished)의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에 따라 5집단으로 나누었다.

쉬운기질 : 기질분류 영역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그리고 정서성) 중에서 4 영역 이상이 평균보다 작고, 한영역이 평균보다 클지라도 1 S.D.이하인 경우.

어려운 기질 : 기질분류 영역 중, 반응 강도를 반드시 포함한 4개 이상이 평균보다 크되, 2개 이상이 1 S.D.이상 큰 경우

더딘 기질 : 어려운 기질의 경우와 같으나 접근성이나 적응성이 평균보다 1 S.D. 이상 큰 경우에, 활동수준은 평균에 0.5 S.D.를 더한 값보다 크지 않고, 정서성은 평균에 0.5 S.D.를 뺀 값보다 작지 않은 경우

중간고기질 : 기질분류 영역 중 2개 또는 3개가 평균보다 1 S.D.이상 큰 경우

중간저기질 : 나머지 모든 경우

본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과 t 검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

영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 차이가 있는가를 χ^2 검증한 결과를 <표1>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질집단 분포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있었다.

< 표 1 >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

성별 \ 기질	어려운 기질	더딘 기질	중간고기질	중간저기질	쉬운 기질	계
남	6	1	8	13	39	67
여	7	3	16	32	18	76
계	13	4	24	54	57	143

$$\chi^2 = 18.95, df = 4, P < .01$$

남아는 여아에 비해 더딘기질, 중간고기질, 그리고 중간저기질을 적게 보인 반면에 쉬운기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어려운 기질의 분포에는 남아의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9개 기질영역에 어떠한 성차가 있는가를 <표2>에 제시하였다.

〈 표 2 〉 각 기질 영역에서의 성차

성별 기질영역	남	여	t
활동수준	4.28	4.34	0.65
규칙성	3.11	3.05	0.60
접근-배척	2.92	3.30	3.03 **
적응성	2.62	2.77	1.45
반응강도	3.80	4.03	2.14 *
정서성	3.20	3.44	2.76 **
지구력	2.96	3.09	0.93
주의분산도	2.50	2.77	2.62 **
반응역	3.77	3.93	1.86

*P < . 05 , **P < . 01

이와 같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응강도가 약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 쉬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활동수준, 생리적 주기의 규칙성, 적응성, 지구력, 그리고 반응역의 크기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1 〉과 〈 표 2 〉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남아는 여아보다 쉬운기질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또한 쉬운기질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 유무에 따른 기질 차이

먼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의 기질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는 〈 표 3 〉과 같다.

〈 표 3 〉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의 기질 차이

기질	어려운 기질	더 딘 기질	중간고 기질	중간저 기질	쉬운 기질	계
대졸	10	3	13	25	27	78
고졸	3	1	11	20	30	65
계	13	4	24	45	57	143

$\chi^2 = 4.597, df = 4, N.S.$

〈표-3〉에서 보듯이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영아의 기질분포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어린이의 기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표-4〉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영아의 기질 차이

기질 직업	어려운 기 질	더 딴 기 질	중간고 기 질	중간저 기 질	쉬 운 기 질	계
유	5	0	4	15	15	39
무	8	4	20	30	42	104
계	13	4	24	45	57	143

$$\chi^2 = 5.034, df = 4, N.S.$$

〈표-4〉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영아의 기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3〉과 〈표-4〉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유무에 따라서 영아의 기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 기질에 대한 인식

영아의 기질 집단은 어머니가 평정한 자녀의 객관적 행동방식의 점수를 근거로 분류되

었다. 이렇게 객관적 행동방식에 의해 분류한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가 인식하는 돌보기 어렵고 쉬운 정도와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한 결과를 보면 〈표-5〉와 같다.

〈표-5〉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인식

기질 인식	어려운 기 질	더 딴 기 질	중간고 기 질	중간저 기 질	쉬 운 기 질	계
돌보기어렵다.	9	2	5	12	5	33
보통이다.	2	1	11	17	18	49
돌보기쉽다.	1	1	8	16	33	59
	12	4	24	45	57	141

$$\chi^2 = 23.232, df = 8, P < . 01$$

권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참고로 본연구 대상의 기질을 미국의 Carey와 McDevitt(1978)의 연구대상과, 대만의 Hsu와 동료들(1981)의 연구대상과 비교해 보았다. 기질집단 분포에서 미국의 연구대상과 차이가 없었으며 ($\chi^2 = 4.201$, $df=4$, N.S.), 대만의 연구대상과도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chi^2 = 6.955$, $df=4$, N.S.).

9개 기질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연구대상에 비해 본연구의 대상이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며, 접근성과 적응성이 낮고, 정서표현이 격렬하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고, 주의 분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영역은 활동수준, 지구성, 그리고 반응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본연구 대상이 Carey의 대상보다 어려운 기질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만의 연구대상과의 비교에서는 본연구 대상이 활동수준이 높고, 접근성과 적응성이 낮으며, 반응강도가 크고, 반응역이 높아 어린이의 반응을 일으키는 데 보다 큰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연구의 대상이 대만의 연구대상에 비해서도 어려운 기질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원 영미의 논의와 같이 우리나라 영아가 어려운 기질특성을 보이는 것이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Carey나 Hsu는 소아과 의사들로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질문지를 배분하고 회수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우편으로 질문지를 우송하고 반송받았다. 이러한 자료수집 상의 차이로 본연구 대상의 기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영아가 미국이나 대만 영아들보다 어려운 기질을 가졌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별 또는 경제적 배경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에 따른 기질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원 영미(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연구 모두에서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었으므로 여러수준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aughn과 동료들(198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의한 영아의 기질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연구대상의 기질을 Carey와 McDevitt(1978)의 대상과 비교하여, 그들 연구대상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배경이 Carey의 대상보다 낮았으며 그들 대상의 기질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즉 같은 경제적 배경의 집단내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과 경제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영아가 어려운 기질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영아의 기질 측정이 어머니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어머니를 통한 기질 측정이 순수한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나 선천적인 기질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순수한 어린이의 기질을 아는 것도 의미있겠지만 어머니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기질을 측정하는 것

이처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를 돌보기 쉽고 어려운 정도는 영아의 기질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행동방식에 의해 분류한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주관적 인식과 일치함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연구는 5~8개월 영아의 기질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에게 영아의 객관적 행동방식을 질문하여 얻은 점수를 Carey의 분류방식에 의하여 어려운기질, 더딘기질, 중간고기질, 중간저기질, 그리고 쉬운기질의 5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분류된 기질 분포에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결과 쉬운기질을 보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고, 여아는 남아에 비해 더딘기질, 중간고기질, 그리고 중간저기질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arey와 McDevitt(1978)의 연구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더딘기질과 중간고기질을 많이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Bates와 동료들, 1982; Blennow & McNeil, 1979; Hus와 동료들, 1981)에서는 6개월아의 경우에 어려운기질과 쉬운기질 분포에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한편 9개 기질영역의 점수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9개 영역중 4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접근성이 높고, 반응강도가 약하며, 정서가 긍정적이고, 주의분산이 쉬운 특성이 있었다.

Carey와 McDevitt(1978) 그리고 Hus와 동료들(1981)의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접근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Carey와 McDevitt는 이러한 결과가 접근성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중 5개 문항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그 5개 문항은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떠한 편견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아의 순수한 접근성의 차이라고 하겠다.

Blennow와 McNeil(1981)은 6개월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성이 높고 활동수준이 높으며 주의분산도가 크다고 하였다. 이는 본연구에서 남아의 주의분산도가 큰것과는 일치하고 있었으나 적응성과 활동수준이 높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기질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연구의 결과에서, 6개월아의 경우에 쉬운기질과 어려운기질 분포에 성차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남아가 쉬운기질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 영미의(198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남아를 여아보다 돌보기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원 영미는 Bates(1982)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Bates의 연구결과에서는 쉬운기질과 어려운기질에 성차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Bates의 연구대상들에 비해 원 영미의 연구대상이 어려운 기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영미는 이러한 차이를 문화

이 보다 의미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아의 객관적 행동방식에 의해 분류한 기질이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돌보기 어렵고 쉬운 정도와 일치하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RITQ의 점수로 분류한 기질이 영아 자신이 소유하는 기질 특성을 설명할 뿐 아니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주관적 기질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가 인식하는 주관적 평평가에 의해 측정한 Bates와 동료들(1979)은 그들의 결과가 Carey의 RITQ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와 상관이 높지는 않으나 일관성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의 행동 방식에 의한 기질 분류와 어머니의 자녀 돌보기에 대한 인식이 일치한다는 점은 Bates와 동료들(197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2. 결 론

본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아의 기질 분포에 뚜렷한 성차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쉬운 기질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접근성이 높고, 반응강도가 약하며 정서가 긍정적이고 주의 분산이 쉬운 기질 특성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 유무에 따른 기질 분포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영아의 객관적 행동방식에 의하여 분류한 기질이 어머니의 자녀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고 있었다.

끝으로 기질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기뿐 아니라 유아기와 학동기까지 종단적 연구를 하여 기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변인을 함께 조사하여 기질과 환경간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에 따른 어린이의 기질 차이를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원 영미. (1987). 유아(4-7개월)의 기질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논문집, 제 22집, 595-613.
- Bates, J.E., Freeland, C.A.E., & Lounsbury, M.L.(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Bates, J.E., Olson, S.L., Pettit, G.S., & Bayles, K.(1982). Dimensions of irdividuality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t six months of age. Child Development, 53, 446-461.
- Bates, J.E., & Pettit, G.S.(1984). Continu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from six to thirteen months. Child

- Development, 55, 729-739.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ennow, I.P., & McNeil, T.F.(1979). A questionnaire for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six-month-old infants: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13.
- Blennow, I.P., & McNeil, T.F.(1980). Questionnaire for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one-and two-year-old children: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1, 37-46.
- Blennow, I.P., & McNeil, T.F.(1981).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relation to gender, birth order, and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710-714.
- Buss, A.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Wiley.
- Carey, W.B.(1973). Measurement of infant temperament in pediatric practice. In J.C.Westman (E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 NY: Wiley
- Carey, W.B.(1983). Some pitfalls in infant temperament researc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 247-254.
- Carey, W.B.(1986). The difficult child. Pediatrics in Review, 8, 39-45.
- Carey, W.B., & McDevitt, S.C.(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Dunn, J., & Kendrick, C.(1980). Studying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Comparison of interview and direct observatio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2, 484-496.
- Hubert, N.C., & Wachs, T.D.(1985). Parental perceptions of the behavioral components of infant easiness and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56, 1525-1537.
- Hubert, N.C., Wachs, T.D., Martin, P., & Gandour, M.J.(1982). The study of early temperament:

-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Child Development, 53, 571-600.
- Hsu, C.L., Soon, W.T., & Stigler, J.W. (1981). The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babies. Child Development, 52, 1387-1340.
- Maccoby, E.E., Snow, M.E., & Jacklin, C.N.(1984). Children's disposi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t 12 and 18 month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59-472.
- Rothbart, M.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Sameroff, A.J., & Kellg, P. (1977). Socio-economic status, racial and mental health factors in infant temperament. In A. Thomas & S. chess. (Eds.), Temperment and development. NY : Brunner/Mazel.
- Sameroff, A.J., & Seifer, R., & Elias, P.K. (1982). Sociocultural variability in infant temperament ratings, Child Development, 53, 164-173.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 New York University Press
- Torgersen, A.M., & Kringlen, E. (1978). Genetic aspects of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infa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7, 433-444.
- Vaughn, B., Deinard, A., & Egeland, B. (1980). Measuring temperament in pediatric practice. The Journal of Pediatrics, 96, 510-514.